



國際原油市場에서 異變이 일어나고 있다. 國際原油價格이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 「魔의 30달러線」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産油國들은 産油量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넘치는 原油를 팔 곳이 없어 찢찢매고 있다. 지금까지 OPEC (石油輸出國) 내에서 강경파로 高油價 政策에 앞장서 오던 이란은 올들어 4 차례에 걸쳐 原油價格을 4 달러나 引下했다.

이에 따라 國內原油도입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産 原油價格은 輕質油인 이라니언 라이트가 배럴당 34달러 20센트에서 30달러 20센트로, 重質油인 이라니언 헤비가 배럴당 32달러 30센트에서 28달러 30센트로 각각 引下되어 지난 年未 OPEC 價格單一化로 油價가 引下조정된 이후 배럴당 4 달러가 내렸다.

82年 石油情勢展望

또 하루 2萬배럴의 原油를 우리나라에 供給하고 있는 멕시코도 對韓原油價格을 배럴당 2달러씩 내려 3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輕質油인 이드무스原油價格은 배럴당 35달러에서 32달러 50센트로 2달러 50센트, 重質油인 마야原油는 26달러 50센트에서 25달러로 1달러 50센트를 내렸다. 그 결과 2종류의 原油를 절반씩 들여 오는 우리나라의 멕시코産 原油도입가격은 종전의 배럴당 30달러 75센트에서 28달러 75센트로 2달러가 싸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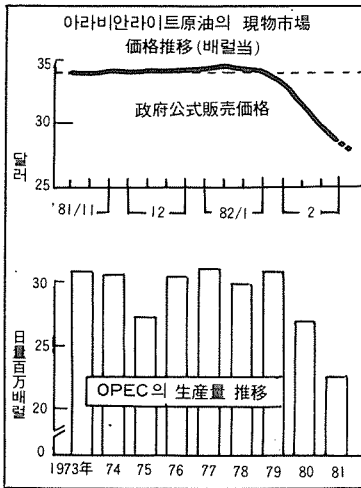
이같은 추세는 現物市場에도 그대로 반영돼 최근 現物市場의 가격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라비안 라이트의 경우, 지난 1月末에 정부公式 판매가격 (GSP)인 배럴당 34달러線을 하회한 이래 약 1개월만에 배럴당 28달러線까지 떨어졌다.

이란革命 직후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한 産油國들이 高騰하는 現物市場價格을 지표로 하여 프리미엄 (割增金)이나 서차지 (課徵金)을 일방적으로 부과

하여 가격인상경쟁을 벌여 왔으나 이제 사태는一变, 價格引下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國際原油價格의 하락은 所要原油의 全量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가격이 내리는 경우, 이로 말미암은 좋은 영향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價格이 오를 경우의 무거워지는 짐이 우리에게 매우 심했던 것과 正反對의 효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國內油價가 단 1%라도 인하되려면 全休原油도입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産 原油가 최소한 배럴당 2 달러가 引下되어야 가능하다.



産油國의 對韓原油공급가격은 지난 해 油價조정 이후 이란, 멕시코 등 일부 産油國의 인하로 國內油價는 2.1%의 引下요인이 발생했으나, 換率이 오히려 3.5%나 올랐기 때문에 國內油價는 현재까지도 1.4%의 引上要因을 안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國內油價를 引下할만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 3. 11油價引下の 배경도 따지고 보면 國際原油價의 引下도 약간 작용했지만, 주로 原油도입에 부과하는 안정기금의 축소조정등 對內的인 인하요인을 활용한데 있었다.

國際原油價格의 下落현상은 근본적으로 石油需要의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서 비롯되고 있다. 81년

의 경우, 우리 나라의 石油製品소비는 前年對比 0.7%가 감소했으며, 美國은 6.2%, 英國 7.6% 프랑스 11.7%, 西獨 9.3%, 日本은 6.3%가 각각 감소했다.

自由世界의 石油소비량은 지난 79년 하루 5천1백60만배럴을 피크로 80년 4천9백만배럴, 81년 4천6백50만배럴로 줄어 들었다. 지난 해 소비량은 80년에 비해서는 5.1%가, 79년에 비해서는 9.8%가 각각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9년초 하루 3천1백만 배럴에 달했던 OPEC産油량은 지난 연말 2천70만배럴로, 올해 들어서는 다시 1천9백80만배럴로 각각 감소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石油소비의 감소추세는 高油價로 전반적인 에너지消費節約이 이루어지면서 石油에 대한 代替에너지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73년 이래 17배나 폭등한 國際原油價格은 에너지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原油情勢를 보면, 産油國들이 공급조절에 관한 어떤 劇的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供給과잉경향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展望이 지배적이다.

景氣面에서 볼 때, 美國은 빨라도 올 下半期에나 景氣回復이 기대되고 있으며, 유럽諸國도 景氣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石油消費國의 에너지需要增大는 극히 의문시되며, 代替에너지로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어 石油需要의 회복은 올해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에너지專門家들은 현재와 같은 石油의 과잉공급 현상과 그에 따른 國際油價의 安定勢가 向後에도 지속될 것이라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다. 石油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국제적인 石油需要는 극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世界經濟가 회복되고, 非産油開發國 및 産油國 자체의 石油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는 시기가 오기전까지 (80年代 후반)는 소위 「油價安定時代」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金乾洽 ·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